

금남로에서

신 향 락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광주에 특별히 배려한 게 있는가'. 얼마 전 우연히 만난 민주당 박지현 의원(목포)에게 생각난 김에 불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잠시 생각한 끝에 "글쎄요... 우리는행에 통합될 광주은행을 지켰잖아요"라며 겸연쩍은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하는 적극성을 보였지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효과와 고용 창출이 어떻고, 예산은 민자로 얼마를 유지하고, 국고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득력 있는 대안과 근거까지 제시했느냐'고 하면 이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당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현 노동부장관)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산 관련부처 역시 한나라당에서 지원을 약속했다고 들었었더니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며 민주당 쪽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예요. 이미 여러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주는 교훈

사하니 대통령께서도 도와주시 않을 방법이 없었지요"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광주에 항상 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박광태 시장이 잘하고 있으니 큰 위안이 된다"며 "광주가 국비 2조원, 재정 규모 3조원 시대를 맞은 게 박 시장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실 박 시장은 돈을 모으고 만드는 데 귀재로 불렸다. 얼마 전 만난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박 시장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김혁규 전 지사보다 한수 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시장이 나에게 간혹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한나라당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경제 살리기' 큰 결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광주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광주시가 타당성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특정한 사업을 할테니 예산만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안을 올리다 보니 관계부처에서 번번이 사업이 누락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역으로, 청와대에서 사업안을 만들어 광주시로 하여금 올리도록 해서 사업을 착수한 일도 있었어요"

그는 당시 김혁규 경남지사를 예로 들며 과거 말을 이어갔다.

"김 지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 설명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박 시장의 사업적 판단 때문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 전국의 각 시·도가 막바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즈음 사실상 유치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박 시장은 내부적으로 대구시를 밀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대구시는 마침내 충북 오송과 함께 유치에 결정되자 답례로 광주시와 손을 잡고 초광역 개발권 내륙특화밸트 구축과 R&D(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현재 공사단계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적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던 정 도로 무르익은 상태다.

지난 8년간 박광태 시장은 참 많은 일들을 했다. 2002년 취임 당시보다 예산 규모

를 3.6배나 늘렸고 수출도시 '1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가 8년 전 시장의 최우 선 과제로 삼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이 나름의 결실을 본 것이다.

'소통 부재'가 치명타

그럼에도 3선 문턱에서 그 스스로 출마를 접어야 했던 연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소통 부재'라 할 수 있다. 그 결정적 요인이자 지난해 말 몸부림과 관련한 논란이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행정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찬반논란이 격화돼 지역 내 갈등과 대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30일 퇴임사에서 "강한 결단과 추진력 때문에 때로는 밀어붙이기 식이냐, 독선적이냐 하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다. 시민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해 소통 부재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박 시장의 지난 8년은 공고 불개도 작금의 화두가 된 '경제 살리기'에서 시작해 '소통'에서 멈춘 셈이다. 민선 5기 강운태 광주시장이 '소통'을 시정의 컨셉으로 잡은 것은 당연한 셈이다. 지난 1일 집무에 들어간 자치단체장 역사 소 통이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 살리기를 소홀히 한다면 4년 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균형 감각을 갖추라는 얘기가.

<논설주간> hlshin@kwangju.co.kr

시 설

수익만 따져선 사회적 기업 설자리 없다

지난 1일로 만 3년째를 맞은 사회적 기업이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분야가 여전히 민간 서비스나 기존 복지 서비스와 중복돼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일몰제 심사 기준이 가장 큰 이유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69곳으로 지난해 120여 개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노동부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무더기로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수익성을 강조한 것은 '수익과 공익적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는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은 쉽게 말해 '뺑을 팔려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뺑을 파는 기업'이다. 취약·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설립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수익만을 중시해선 사회적 기업이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분야가 여전히 민간 서비스나 기존 복지 서비스와 중복돼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일몰제 심사 기준이 가장 큰 이유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69곳으로 지난해 120여 개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노동부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무더기로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수익성을 강조한 것은 '수익과 공익적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는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은 쉽게 말해 '뺑을 팔려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뺑을 파는 기업'이다. 취약·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설립 취지인 것이다.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된 광주지역 편의점

광주지역 편의점들이 잇따라 강도 피해를 입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은 13건에 이른다. 한 달 평균 2곳 이상의 편의점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광주지역에 편의점 강도가 활개 치고 있는 것은 방범체계 허술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위방범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편의점의 비상전화로 신호를 보내면 지구대에 즉시 출동하는 '자위방범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광주지역 편의점 10여곳을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근무자들이 아예 비상전화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반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CCTV 역시 편의점 강도 검거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 CC-TV는 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가게 천장 모서리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문에 강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보장제도 역시 편의점 입주들의 방범 의식 약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는 편의점들이 자위방범을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계산대 금고 1대당 10여만원씩의 피해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금액 보전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자위방범 체제'를 강화하거나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도록 계산대 앞쪽에 CC-TV를 설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편의점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지난 5월 현재 광주에만 500곳이 넘는 점포다. 편의점이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은 그만큼 민생치안 에 구멍이 뚫린 것과 마찬가지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김 창 군



학교의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 안쓰럽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각 과목의 성적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자녀의 모습이 맞닿는다. 정채승은 '과학콘서트' 서문에서 '1988년 6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날 자신은 기말고사를 위해 둘러 문지를 풀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는데, 우리 자녀는 훗날 뒤라도 이 순간을 회고할까 싶다.

아니라 '평생직업'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평생 동안 7~8개의 직업을 갖게 되는 한편 정년도 사라진다고 한다. 즉 '평생학습 시대'가 도래하므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공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자질이 중요해진다. 최근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자기 기획형' 인재를 찾아내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실시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부모가 가드너의 다중지능

자녀교육과 부모 역할

자녀의 진로 문제는 가정의 환경과 경제력을 떠나 모든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교육과 직결하여 생각하다 보니, 성적은 부모의 투자에 비례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가게 소득의 절반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현실도 부단이지만, 자녀가 부모의 조바심을 뒤틀전으로 내몰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기라도 할 때면 역장이 무너지기도 한다.

이쯤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키워드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과거와 달리 고용 상황과 직업 세계가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운동 처방사, 애견 미용사 등의 직업은 이색(異色)이라는 딱지를 뚫지 오래다.

직시경계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12개 유망 업종에도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전시, 패키지, 컨설팅, e-러닝, 지식 정보보안, u-헬스케어 등 이름조차 낯선 직업이 태반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종전의 지식 기억 교육과 분석적 사고 위주의 교육은 뛰어 넘어야 할 장벽이 되었다고, 새롭게 창의성과 하이컨셉(High-Concept)이 교육의 중심에 서고 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

이론 중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에만 관심을 두고, 자녀가 그 분야로 진출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 존의 직업 세계 속에서 명예와 천금을 거머쥐려는 분위기에 편승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시각 공간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탐구 지능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영원한 인기 직업도 비인기 직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학벌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 분야에 대한 '학습 성과(Learning Outcome)'와 '역량'이다. 특히, 복수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파이(π)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적성과 소질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걸맞은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적성과 부합한 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학기말 고사 성적을 놓고 아이의 대학, 미래의 직업을 고민하는 부모라면 한번쯤 고민해 볼 일이다.

<광주 북성중 교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결연을 심는 코너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 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1955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적응성과 생산성이 우수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겨울철 풀 사료이다.

특히 소가 좋아하는 양질의 풀로, 올해 불처벌 잦은 강우로 인한 습해와 불량한 배수조건에서도 잘 견뎌 우리의 부족한 조사료 자급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청보리·호밀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월동 사료작물

서 성



을 시작으로 증생종, 만생종, 다음 재생되는 조생종 순으로 이용한다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입 조사료와 비교해 품질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통가격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소는 기본적으로 풀을 먹고 사는 초식가축이다. 라이그라스 같은 양질의 풀 사료를 많이 먹으면 마리아당 하루 2kg의 배합사료 절감도 가능하다.

1년이면 700kg의 사료를 줄일 수 있어 우리나라 소 300만두를 기준으로 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그린 축산' 희망

로, 청보리와 호밀이 가지고 있는 재배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준다. 또한, 잎과 줄기가 부드럽고 분얼(가치치기)이 왕성하고 재생이 우수해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연중 이용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1998년 국내육성 품종 1호인 '화산 101호'를 비롯한 조생품종 '코그', '코스피드', '코원어', 중생품종 '코원마스터' 등을 개발·보급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양질 조사료 확대생산 정책에 힘입어, 라이그라스의 재배면적은 2000년 11만6천ha에서 2005년 13만9천ha, 2007년 21만7천ha, 2008년 34만9천ha, 그리고 지난해에는 52만2천ha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간을 재배된 청보리 33만7천ha, 호밀 40만3천ha, 귀리 3만6천ha에 비해 월등히 많은 면적이다.

개발된 조생·중생·만생 품종의 영농현장 적용으로 이용기간 연장과 작부 체계의 다양화 및 농가계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조생종 라이그라스 이용

간 200만톤 이상의 배합사료를 줄일 수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개발한 '녹색의 풀 사료, 라이그라스'로 축산 사료비(경영비) 절감, 수입 곡류사료 절감, 친환경 축산 영위, 구제역 같은 악성 가축질병의 원인 차단, 녹색이 뿜어내는 목가적 정서함양, 고품질 안전 축산식품 공급(친환경 향우고기, 청정 우유 등) 등 그 가치는 무한하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로 곤포 사일리지도 만들고 고품질 건조도 만들어보자. 베어서도 먹어보고 녹색의 라이그라스 초지에서 방목도 시도해보자. 라이그라스의 생육에 이상적인 제주, 전남, 전북 일부 지역을 연결하는 라이그라스 그린벨트(Green Belt)도 조성해보자. 매력의 풀 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로 '푸른 농촌 희망 찾기'운동에 동참하고 우리 모두 '그린 축산'시대를 열어보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모든 식당에 나트륨 함량 표시제 의무화 해야

우리 국민들의 짜게 먹는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이는 개인에게 질병으로 인한 생산적 활동 중단과 함께 가정 경제 타격을 줌으로써 가족 전체에 부담과 손실을 끼친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단 혹은 감소로 인한 손실은 물론, 병원에 자주 다님으로써 국가 건강보험 제정을 소진하게 하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우리의 식습관은 입맛이 없을수록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될 때가 많다. 이럴

때 우리가 먹는 나트륨량이 적지 않다.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혈관을 부풀여 오르게 해 고혈압을 부르는 것이다. 대표적인 병이 바로 성인병이다.

일본에 보도를 보니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트륨 함량 표시 제도를 대형 마트와 백화점 음식에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트륨 함량 표시도 백화점 같은 식당뿐 아니라 100원 이상의 모든 식당에 의무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無 等 鼓

세상에서 가장 큰 바늘은 뭘까? 답은 '클레오파트라 바늘'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석조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벨리스크(Obelisk)라고도 불린다.

태양의 신 아몬(Amon)을 위해 세워진 오벨리스크는 기원전 1500~1300년대에 제작된 것들이다. 아스완 지역 특 과거 식민지배를 겪었거나 전쟁에서 패배해 문화유물을 약탈당한 경험이 있는 21개 국가가 참여했다.

참가국들은 우선 돌려바탕을 희망하는 문화재 목록을 작성, 이를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한국에서 외교 국가라면 모두가 탐을 내는 기념물이 된 것이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날 때 아내 조제핀이 '이집트 기념 선물로 오벨리스크 하나만 갖다줄 것'을 부탁했 을 정도다.

'클레오파트라 바늘'은 수많은 오벨리스크 가운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

투스가 기원전 10년무렵 카이로 부근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빨아내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온 2개를 말한다. 결국엔 이 거대한 바늘도 이집트를 정복한 로마 황제의 약탈품인 셈이다.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협력회의'가 열렸다. 이집트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 그리스와 이탈리아, 중국 등 21개 국가가 참여했다.

참가국들은 우선 돌려바탕을 희망하는 문화재 목록을 작성, 이를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한국에서 외교 국가라면 모두가 탐을 내는 기념물이 된 것이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날 때 아내 조제핀이 '이집트 기념 선물로 오벨리스크 하나만 갖다줄 것'을 부탁했 을 정도다.

'클레오파트라 바늘'은 수많은 오벨리스크 가운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



클레오파트라 바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0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F A X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34 <F A X 227-9500>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제부 2200-64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1부 2200-612 <F A X 222-4267>	체 육 팀 2200-673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2부 2200-692 <F A X 222-4267>	체 육 팀 2200-69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